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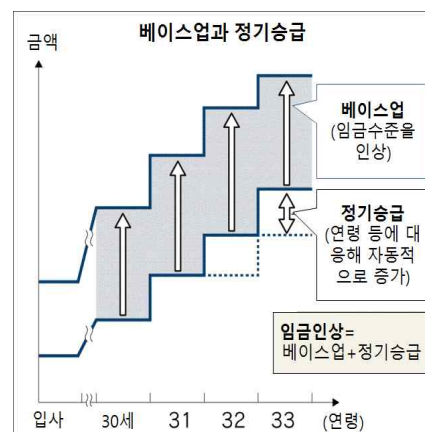
2016년 일본기업의 임금 협상 결과

-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아베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
- '16년은 작년보다 임금 인상 폭이 작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

□ 정부가 임금을 주도

- '16.1월 말부터 춘계노사협상(춘투)이 시작, 노조는 베이스 업을 중심으로 '15년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, 사용자는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에 신중한 입장

- 베이스 업이란 일본 기업이 임금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직원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
- 정기승급을 매년 실시하는 기업이 많지만, 베이스 업 보류로 야근 수당이 축소되거나 월정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



- 아베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경단련이나 렌고(노조 단체) 등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관제춘투(官製春闘)를 추진

- 아베노믹스로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베이스 업을 실시하는 기업도 증가

□ 주요 기업의 임금 협상

① 자동차업종

- 일본 최대 제조업 연합노조(315조합, 총 33만 5,000명)인 전도요타노동조합연합회는 노사협상에서 월 3,000엔 이상의 베이스 업을 요구

- 도요타의 '15년도 연결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인 2조 8,000억 엔임에도 불구하고, 엔저에 의한 효과가 크다는 것을 고려, '15년 요구액(6,000엔)의 절반에서 협상
- 도요타자동차노조(약 6만 8,000명)는 '15년 협상에서 최고 수준인 4,000엔의 베이스 업을 했지만, 그룹 기업 간 금액이 차이가 있어, 중소노조와의 임금격차 시정이 과제가 되고 있음
 - * 덴소, 아이신정기, 도요다자동기기 등은 '15년 임금인상이 3,000엔, 그룹 제조업의 평균 인상액은 1,313엔으로 베이스 업이 실현되지 않은 노조도 있음
- 자동차총련은 베이스 업 외에 완성차 등 대기업뿐만 아닌 중소 부품기업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도록 기업노조에 지시
 - 종업원 3,000명 이상인 기업은 3,000엔, 2,999명 이하는 3,200~3,300엔 이상의 베이스 업을 요구
 - 기계·금속 관련 중소기업의 대표 단체인 모노즈쿠리 산업노동조합(JAM)*에 따르면 '16년 춘계 노사협상에서 베이스 업을 요구한 462개 노조의 평균액은 4,848엔
 - * JAM에는 전기, 기계, 자동차 등 중소기업 노조 2,400단체, 약 35만 명이 가입
- 도요타 경영진은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도 3년 연속 베이스 업 실시하기로 결정
 - 임금 인상 폭은 전년대비 60% 감소된 월 1,500엔이었으나 도요타자동차 노조는 보너스 증액을 요구하여 전액 획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는 '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
- 도요타 그룹의 중견 부품기업인 도요타철공은 월 1,600엔의 베이스 업을 결정하는 등 일부에서 도요타자동차보다 많은 임금 개선을 결정

② 전자업종

- 샤프 노조는 보너스 4개월분('15년 2개월분)을 요구, 임금개정은 상부 단체인 전기 연합이 요구하는 월 3,000엔 이상의 베이스 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4년 연속 산업별 단체 협상에서 이탈

- 사프는 업적 부진으로 '15.8월부터 일반직원 급여를 1~2%, 임직원 보수를 최대 55% 삭감하고 있으며 이는 '16.4월 이후도 계속될 예정
- '15.9월말에는 약 3,200명의 희망퇴직자를 모집, 우수인재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직원들의 사기 저하
- 도시바 노조는 베이스 업 요구를 보류하여 사프와 같이 전기연합의 단체협상에서 이탈
 - 도시바는 '16.3월기 연결최종손실이 과거 최악인 7,100억 엔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이어서 경영 재건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
 - '16.2월부터 임직원 보수의 삭감 폭을 확대,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급여도 10,000엔 이상 삭감
 - 한편 도시바 그룹 내에는 업적이 양호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베이스 업을 요구하는 노조도 있음
- 파나소닉 노조는 산업별 최저임금(18세 기준)으로 현행보다 2,000엔 많은 월 16만 500엔을 요구
- 전자업종 대기업 경영자 측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, 베이스 업 월 1,500엔으로 결정
 - 노조는 최근 3년간 6,500엔의 베이스 업에 협상에 성공
 - 2014: 4,000엔(요구) 2,000엔(협상), 2015: 6,000엔(요구) 3,000엔(협상), 2016: 3,000엔(요구) 1,500엔(협상)


③ 기타업종

-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금융 산업계에서 베이스 업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확산
 -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노조는 3년 만에, 손해보험재팬니폰코아 노조도 2년 만에 베이스 업 요구를 보류
 -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나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노조도 베이스 업 요구를 보류

- 홋카이도전력 노조는 ‘15년 1분기 업적이 5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으로 월 2,000엔의 베이스 업을 요구
 - 간사이전력 노조는 베이스 업 요구는 보류하는 대신 2년 만에 보너스 지급을 요구
- 기린맥주는 ‘15년 일본국내 맥주 세어가 증가하여 15년 만에 베이스 업을 실시하여 노조에서 요구한 월 3,000엔에 대해 2,000엔 으로 협상 타결
- 전력 산업은 ‘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경영 부진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
 - 도쿄전력은 ‘16.4월부터 조합원의 연봉을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5% 감소 수준까지 회복시키기로 합의
 - 추부전력은 ‘14.4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월급 삭감을 1,000엔 축소하기로 타결, 큐슈전력은 4년 만에 보너스 지급을 결정
- 도큐백화점은 19년 만에 베이스 업과 보너스 인상을 결정, 노조에서 요구한 월 1,000엔을 전액 인상할 예정

□ 시사점

- 이번 협상의 결과로는 2% 물가상승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정부나 일본은행은 다소 실망
 - 다이와총연에 따르면 2% 인상할 경우, 소비 확대 효과는 베이스 업 5.3조 엔, 보너스 7,000억 엔으로 아베 정권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
-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만,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은 임금 인상에 한계에 봉착해 있음
 - 아베 총리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「동일노동 동일임금」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,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10만 엔 이상의 임금격차 발생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를 시정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이 증가하여 청년실업을 해소시켜야 함

-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의 하나가 노동 환경·처우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시킬 필요 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6.1.12/16/27/28/29, 2.2/13/17/18/19/25/26/27, 3.4/10/15/16/17/18)

< 참고 >

일본 주요 기업의 임금협상 결과

기업명	2016		2015	2016		2015
	베이스 업 (월 증가액)	(요구)	베이스 업 (월 증가액)	보너스	(요구)	타협 보너스
도요타자동차	1,500엔	(3,000엔)	4,000엔	전액	(7.1개월 분)	6.8개월 분
닛산자동차	전액		5,000엔	전액	(5.9개월 분)	5.7개월 분
혼다	1,100엔		3,400엔	전액	(5.8개월 분)	5.9개월 분
후지중공업	1,300엔		3,300엔	전액	(6.5개월 분)	6.0개월 분
미쓰비시자동차	1,100엔		2,000엔	전액	(5.5개월 분)	5.5개월 분
마쓰다	1,200엔		1,800엔	5.6개월 분 +3만 엔	(5.7개월 분)	5.5개월 분
스즈키	1,200엔		1,600엔	5.8개월 분	(5.6개월 분)	5.6개월 분
다이하츠	1,500엔		1,600엔	5개월 분 +3만 엔	(5.5개월 분)	5.5개월 분
히타치제작소	1,500엔	(3,000엔)	3,000엔	5.69개월 분	(5.9개월 분)	5.72개월 분
파나소닉	1,500엔		3,000엔	업적 연동		
미쓰비시전기	1,500엔		3,000엔	5.94개월 분	(6.13개월 분)	6.03개월 분
도시바	-	(-)	3,000엔	2개월 분	(업적 연동)	4.89개월 분
샤프	-		-	2개월 분		2개월 분
JFE 스틸	2,500엔*	(4,000엔)*	2,000엔**	업적 연동		
신닛테츠스미킨	2,500엔*	(8,000엔)*	2,000엔**	업적 연동		
미쓰비시중공업	1,500엔*	(4,000엔)*	2,000엔**	64만 엔 + 4개월 분	(65만 엔 + 4개월 분)	59만 엔 + 4개월 분 + 생산협력금 3만엔
IHI	1,500엔*		2,000엔**	4.5개월 분 + 5만 엔	(5.6개월 분)	5.43개월 분
패밀리마트	3,000엔	(-)***	보류	수준 인상		
칼비	3,200엔	(-)***	6,000엔	업적 연동		
NTT 그룹	1,600엔	(4,000엔)	2,400엔	NTT동일본 141.5만 엔	(135.6만 엔 + 업적 반영)	134.5만 엔

* 2년간(16-17년) 분 합계. ** 2년간(14-15년) 분 합계.

** 요구가 아닌 대화로 결정하고 '15년은 임금개선을 실시하지 않음.